

送別과 만남, 국가 행사의 宴會空間 濟川亭

李 東 宰*

<目次>

- | | |
|---------------|-----------------|
| I. 緒論 | IV. 국가 행사의 宴會空間 |
| II. 送別의 宴會空間 | V. 結論 |
| III. 만남의 宴會空間 | |

<국문 초록>

본고는 서울의 한강 가에 있었던 제천정에서 이루어진 송별연과 계획에서 지어진 시, 국가의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宴會에서 지어진 시를 살펴보고 제천정이 갖는 문화사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천정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강 가에 세워진 왕실 소유의 정자로, 주로 왕실과 관련이 있는 행사와 외교 사절의 접대, 고위 관료들의 계획, 고관대작이 외직으로 나가거나 퇴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전별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李适의 亂 때 소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천정에서 펼쳐진 사적인 송별연에서 지어진 송별시는 그 명성에 비해 많지가 않다. 이는 송별의 장소가 나루터나 갈림길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제천정이 왕실소유의 누정이었기 때문에 시인묵객들이 쉽게 이곳에서 송별연을 개최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

契會는 관료사회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과 인적 결속을 위한 관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임이다. 계획은 한강 가 누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는 누정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

* 國立 公州大學校 師範大學 漢文教育科 教授 / leedj@kongju.ac.kr

못했다. 따라서 계획에서 지어진 시 가운데 제천정을 무대로 하거나 소재로 한 한 시는 다른 누정에 비해 그 수요가 많지가 않으며, 작시도 주로 고관대작에 의해 지어졌다.

제천정은 사신들을 위한 연회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사신들도 의례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회를 즐겼다. 이때 외교사절과 이를 수행하는 문인들은 서로 시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盛事로 여겼다. 또한 국가의 원로대신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 임금이 민정을 살피거나 농사의 豊凶을 점검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출타할 때에는 잠시 이곳에 머물며 연회를 베풀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지어진 시의 양과 내용의 분류, 이것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축출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주제어】 제천정, 송별연, 계획, 연회, 외교사절, 고관대작

I. 머리말

우리 선조들은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에 누정을 짓고, 그곳에 동료들을 불러 모아 자연을 완상하며 풍류를 즐기거나, 혼자 있을 때는 독서와 심성의 수양을 위한 遊息의 공간으로 삼았다. 樓는 중첩하여 지은 집을 말하며, 堂과 건축의 방식은 비슷하나 堂보다는 높이가 높은 건축물을 말한다. 亭은 ‘정지한다.’는 뜻의 ‘停’에서 온 말로서 여행하는 사람이 잠시 정지하여 쉬는 곳이다.¹⁾

濟川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사이로 뻗어 내린 남산 줄기의 등성이에 세워진 정자로 한강 너머의 관악산과 한강을 굽어볼 수 있는 승경지에 세워진 정자이다. 그래서 선초의 문인들은 漢陽 十景의 하나로 시화²⁾하는 등, 이곳을 찾아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1) 박종우, 「16세기 누정 공간의 특성과 누정 제영의 문화사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32집, 우리어문연구회, 2008, p.258 참조.

2) 서거정, 『四佳亭集』, 「濟川翫月」, 秋光萬頃琉璃靜, 畫棟珠簾蘸寒影. 長空無

제천정에서 지어진 시나 제천정을 소재로 한 시들은 제천정의 소유·연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제천정은 처음부터 왕실의 소유였기 때문에 개인 문인들이 자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가 없었다. 주로 왕실의 행사나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위한 유람과 연회의 장소로 쓰였고, 종종 고관대작들의 사적인 모임과 외적인 지방관으로 전출되어 가거나 퇴직하여 낙향할 때 송별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제천정에서 지어진 시들은 그 명성에 비해 많이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제천정은 李适의 亂을 피해 仁祖가 야간에 한강을 건널 때, 불을 밝히기 위해 소실된 이후에는 이곳을 찾는 문인이 거의 없어서 이곳을 소재로 하여 지어진 시는 거의 없다. 제천정과 관련된 시는 주로 제천정의 승경을 읊은 시³⁾와 제천정에서 이루어진 宴會에서 지어진 시가 있다.

지금까지 제천정을 소재로 하여 지은 시에 대한 연구 성과는 金永上에 의해 한강의 문화사적 의의를 소개하는 것⁴⁾에서 언급된 이후, 우홍순에 의해 서울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제천정의 의미가 부분적으로 연구되고⁵⁾, 이종묵에 의해 한강의 정자에서 이루어진 宴會와 詩會 가운데 이현보가 외적인 영천군수로 떠날 때, 많은 문인들이 제천정에서 송별연을 베풀어 후대의 盛事가 되었다는 부분적인 연구⁶⁾가 있을 뿐이며,

雲淨如掃，坐待月出黃金餅。乾坤清氣骨已徹，明光一一數毛髮。午夜深深更奇絕，倚遍欄干十二曲，p.145.

- 3) 대표적인 예로 서거정의 漢陽 十景의 하나로 읊은 <濟川翫月>, 이식의 漢都八詠의 하나로 읊은 <濟川翫月>(第一江山表濟川，風光何許最堪憐。碧波千古菱花動，明月三更桂魄懸。銀色界成超濁世，水精宮敞降眞仙，衣冠此地來遊慣，滿眼歡華二百年。), 申光漢의 <御題洞庭，幸宣陵後御濟川亭應製>(平湖秋水政茫茫，樓壓層霄是岳陽。廣樂似聞天上奏，紫煙猶起御前香。澄流變作恩波闊，碧巘還添孝思長。莫道洞庭天下勝，濟川從此擅風光) 등 다 수의 문인들이 제천정의 승경을 시화하고 있다.
- 4) 김영상, 『서울 육백년』 5(한강·한강 유역), 대학당, 1996.
- 5) 우홍순, 「壬辰亂 前後 서울의 文化空間과 漢詩」, 『한국한시연구』 제8집, 한국한시학회, 2000.
- 6) 이종묵,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韓國詩歌研究』 제9집, 한국시가학회, 2001.

이곳을 소재로 한 한시의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제천정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 제천정의 승경만을 읊은 시를 제외하고, 제천정에서 이별과 만남에서 이루어진 연회에서 지어진 시, 국가 사절을 접대하는 연회와 왕실의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宴會에서 지어진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천정이 갖는 문화사적 위치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II. 送別의 宴會空間

송별은 금강산 기행 등 自意에 의해 여행을 떠나거나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으로 인한 국가·사회의 대혼란에 의한 避亂, 관직에 있는 자가 중국과 일본의 사행, 지방관으로의 진출, 당쟁의 격화로 인한 貶謫을 당하면서 생기는 인간사의 한 여정이다. 송별연은 주로 길이 갈리는 곳이나 물을 건너는 나루터에서 주로 이루어 졌으나, 신분이 높거나 혹은 외교적 사명을 띤 경우에는 특별히 경치 좋은 누정에서도 이루어진다.

송별시는 唐나라 초기에 친척이나 친구와 이별할 때 연회를 베풀어 餞別하면서 술을 마시고 시를 적어 주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백하는 송별시는 話者의 위치에 따라 送別詩와 留別詩로 나눌 수 있다. 즉 송별시는 화자가 길을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는 시이고, 유별시는 떠나는 사람이 남긴 시이다.

제천정에서의 송별연은 1419년 세종이 대마도를 정벌하러 떠나는 영의정 柳廷顯 등에게 전별연을 베푼 적이 있고⁷⁾, 1467년(세조 13년)에 韓明澮가 병으로 사직하고 온천으로 요양을 떠나자 세조는 자신을 대신하여 세자에게 전별연을 베풀어 주도록 하였다.⁸⁾이처럼 제천정은 왕실 전

7) 申晔, 『再造藩邦志』, 己亥年五月, 倭船三十餘艘, 入寇于庇仁海州等處. 世宗大王欲乘勝擊滅對馬島, 命領議政柳廷顯爲都統使, 崔潤德爲都節制使, 親餞于漢江濟川亭.

용의 연회 공간이었으나 종종 문인들의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문인들은 송별에 임하며 떠나는 자에 대한 당부와 아쉬움의 情懷, 떠나는 자가 남는 자에게 남기는 心懷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시를 주고받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천정에서 문인들이 사적인 송별연을 베풀면서 지은 시와 이를 소재로 하여 지은 시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시는 佔畢齋 金宗直(1431~1492)이 동료 관원이었던 南忻(1451~1492)이 지방관인 충청도 서부지역 홍주목(지금의 충남 홍성군)의 判官으로 전출되자, 이를 전별하며 지은 시이다.

濟川亭上促飛觥	제천정 위에서 술잔 재촉하여 날리노니
云是洪陽別乘行	바로 홍양의 별승이 떠나기 때문일세.
黃帽艤船將日仄	황모 쓴 자가 배 대니 날은 저물어 가고
阜衣數馬却心輕	조의 입은 아전이 말을 세니 마음 되려 가볍네.
道傍泛菊隣州餞	길가에 국화 띄운 건 이웃 고을의 전별하는 술이요
驛外鳴笳候吏迎	역 밖의 피리 소리는 영접하는 아전이 불리라.
牧伯曾吾京兆長	목백은 일찍이 우리 경조의 장관이었으니
爲言垂白竊虛名	내 늘그막에 헛된 이름 훔쳤다고 말해 주게나. ⁹⁾

시의 수련은 제천정에 오게 된 이유와 술을 급하게 먹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송별의 당사자인 남흔이 사헌부 監察과 의금부 경력을 역임하고 지방관인 홍주의 판관으로 부임하는 것을 전별하는 자리이다. 함련은 수련의 상황을 자세하게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별주를 급하게 먹게 된 것은 해가 이미 저물어 배가 떠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고, 사헌부에서 아전이 나와 騎從과 馱數까지 헤아리며 서둘렀기 때문이다.

8) 徐居正, 『四佳集』, <議政府領議政上黨府院君韓公神道碑銘 并書>, 丁亥秋, 公病辭, 往溫泉. 命世子餞于濟川亭. p.289.
 9) 金宗直, 『佔畢齋集』, <送南判官忻>, p.348.

함련은 화자가 남흔이 충청도 홍주목에 이르는 과정과 홍주목에 도착했을 때의 광경을 상상하여 표현한 것이다. 시의 미련은 화자가 남흔이 부임하게 되는 홍주목의 목사인 宋遙年(1429~1499)과 인연을 말하여, 충청도 홍주목 관관으로 부임하는 남흔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 시에서는 제천정의 위치, 자연경관의 뛰어난에 대한 설명이 없고 다만 송별의 장소로만 존재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1508년 龔巖 李賢輔(1467~1555)가 乞郡하여 경상도 영천 군수로 발령을 받아 한양을 떠날 때, 지인들이 제천정에서 성대한 전별연을 개최하여 주었다. 이때의 송별연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보물 1202호인 <漢江飲錢圖>이다.

농암이 1508년(중종 3년), 아버지가 늙은 것으로 걸군하자, 외직인 경상도 永川郡守로 발령을 냈다. 이 때 이현보와 지역적 연고와 동문인 金安國(1478~1543), 李耜(1488~1530), 崔淑生(1457~1520), 金世弼(1473~1533), 沈義(1475~?), 李希輔(1473~1548), 金瑛(1475~1528), 黃孝獻(1491~1532) 등 많은 관원들이 서울 도성에서부터 출발하여 한강가의 제천정에 이르러 성대한 전별연을 베풀어 준다.

이의 답례로 농암은 다음과 같은 시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낸다.

逐逐來尋別意牽	이별을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에 끌려 바쁘게 찾아와
筆林村下各分船	필림촌 아래에서 각기 나누어 배에 올랐네.
篋聲漸斷人相遠	피리소리 점점 끊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멀어지며
日暮滄洲更茫然	해 저문 검푸른 모래톱은 더욱 아득해지네.
回看華嶽嶙峋峭	뒤돌아보니 북한산만 겹겹이 오뚝하게 솟아있고
恩重如山祝更新	태산같은 君恩의 소중한 것을 경신함을 축하하네.
我去豈堪稱報了	내가 떠나가도 어찌 감히 보답했다고 말하리
秋風落葉合歸根	추풍낙엽은 틀림없이 뿌리로 돌아간다네. ¹⁰⁾

10) 李賢輔, 『龔巖集』, <濟川亭, 次錢別諸公, 到楸子島>, p.388.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헤어짐을 표백하는 이별시는 話者의 위치에 따라 送別詩와 留別詩로 나눌 수 있다. 송별시는 화자가 길을 떠나는 사람을 전송하는 시이고, 유별시는 떠나는 사람이 남긴 시이다. 이 시는 송별의 대상인 농암이 송별에 임하는 심회를 읊은 留別詩이다.

시의 수련은 농암을 전별하기 위한 여러 관원들이 도성 안에서의 송별연이 아쉬워 한강 가에 있는 제천정까지 따라와서 전송하는 장면이다. 함련은 수련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다. 배를 타고 떠나는 화자와 전송을 나온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날은 점점 저물어 가고 서로 악수하며 헤어졌던 모래톱은 아득해져만 간다. 여기에서 ‘茫然’은 공간적 거리가 멀어짐으로 생기는 시각적 ‘아득함’과 먼 길을 떠나는 화자가 느끼는 ‘마음의 거리’라고 重義로 읽힌다.

함련은 한바탕 요란한 송별연을 끝내고 사람들과 헤어진 후 돌아 본 화자 자신의 모습으로 매일 같이 눈앞에 스친 북한산을 볼 수 없는 아쉬움, 임금의 은혜에 다시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의 미련은 화자가 걸군하여 고향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라고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 후 농암은 다시 중앙 관직으로 돌아와 35년간 여러 고위 관직을 역임하고, 1542년 고향인 분내로 완전히 귀거래를 할 때, 다시 제천정에서 성대한 송별연이 벌어진다. 이 전별연에는 愼居寬, 尹任, 鄭士龍, 尹思翼, 李希輔, 尹溪, 尹汝弼, 柳灌, 權機, 李彦迪, 柳仁淑, 李芑, 李霖, 鄭順朋, 洪景霖, 鄭世虎, 權應挺, 金光準 등 당상관과 수많은 당하관들이 참석하였다.¹¹⁾ 이는 이별은 쉽고 재회는 어려워서 옛 사람들은 이를 소중히 여겨서¹²⁾ 송별연을 최대한 거창하게 해 주는 것이 상례였

11) 李賢輔, 『聳巖集』, 「年譜」, 任寅七月十七日拜辭, 門外設錢. 京畿監司愼居寬, 判敦寧尹任, 同知鄭士龍, 尹思翼, 工曹參判尹漑, 僉知李希輔, 尹溪, 府院君尹汝弼, 二相柳灌, 三宰權機, 四宰李彦迪, 吏曹判書柳仁淑, 刑曹判書李芑, 刑曹參議李霖, 戶曹判書鄭順朋, 工曹判書洪景霖, 豆毛浦追錢. 兵曹參判鄭世虎, 參議權應挺, 僉知金光準. 堂下官不錄, 贈詩者職姓在下, 亦不錄. p.455.

기 때문이다. 이 송별연에는 참석자들은 모두 시를 써서 농암을 전별하였으며, 농암은 이 때 지은 시를 모아 『退休時別帖』이라고 제목을 붙여 成冊하여 후세에 전하였다.

본장에서는 이 송별연에 참석하여 지은 여러 문인들의 시 가운데, 호음 鄭士龍(1491~1570)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정사룡이 농암을 전별하기 위한 제천정의 송별연에 참석하여 지은 시이다.

歸棹搖搖泝晚陰	돌아가는 배는 흔들흔들 저녁 그늘 속으로 향하고
佩壺攜別暮江濤	차고 온 술병을 높이 들고 저녁 강가에서 헤어진다.
孔丞請老稱宜舉	공규는 퇴직을 원하는데 마땅히 떠나야함을 말하였고
疏傳還鄉乏賜金	소광은 낙향하느라 황제의 하사금을 버렸다네.
聖主豈無求舊意	성주께서 어찌 옛날의 뜻을 구할 생각이 없으시며
群英應切惜賢心	여러 영웅호걸들은 응당 간절히 어진마음을 애석해 하리.
休官洛下從茲始	사직하고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으니
不負香山結社深	백거이의 결사가 굳건했음을 저버리지 마오. ¹³⁾

시의 수련은 제천정 아래 한강가에서 농암과 헤어지는 장면이다. 出句는 농암을 태운 배가 저녁노을 속에 멀어져가는 모습이며, 對句는 강가에 까지 들고 온 술병을 높이 들어 환송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이다. 함련은 농암이 孔戣와 疏廣같다는 칭송이다. 공승은 당나라 穆宗 때 尙書左丞을 지낸 孔戣를 가리킨다. 목종이 외직에 있던 공규를 吏部侍郎으로 불러들인 다음, 좌승으로 임명하였으나, 공규가 늙었다는 이유로 굳이 사직을 청하였다.¹⁴⁾ 또한 소부는 西漢의 疏廣을 말한다. 그는 宣帝

12) 顏之推, 『顏氏家訓』, 「風操」, 別易會難, 古人所重. 上海古籍出版社, 1980.

13) 鄭士龍, 『湖陰雜稿』, <送李參判南行>, p.434.

14) 『新唐書』卷163, 「孔戣列傳」에 의하면, 공규는 평소 친했던 韓愈가 그에게 “공은 아직 건강하고, 상께서 세 번이나 공을 만류했는데도 왜 꼭 떠나려고 합니까?”하고 만류하자, 공규는 “내가 어찌 임금에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자이겠습니까. 내 나이 많은 것이 한 가지 마땅히 떠나야 할 조건이요, 내

때 황태자의 太傅로 있었는데, 5년이 지나자 관직과 명성이 높아졌는데도 떠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少傅로 있던 조카 受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간 인물이다.¹⁵⁾

시의 경련은 임금께서 농암을 떠나보낸 것을 아쉬워 할 것이며, 이 송별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모두 ‘할 일이 많은데 은퇴하여 떠나감을 아쉬워하고 있으리라.’라는 화자의 의견이다. 미련은 송별시의 결구가 흔히 떠나는 사람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미감을 마감하듯이, 농암의 남은 여생에 대한 당부이다. 화자인 정사룡은 이현보가 자진해서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으므로, 이제 남은 여생은 백거이같이 自然樂을 즐기며 살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이 송별연에 당하관이었던 退溪도 참여하여, 농암에게 ‘陶淵明이 집 주위에 다섯 그루의 버드나무를 심고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겼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 것’을 당부하고 있다.¹⁶⁾ 기실 농암은 壬寅年(1542년) 봄에 병으로 사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때 당대의 사대부들이 모두 도성을 나와 전별하였는데, 도성문에서 체천정에 이르기까지 수레와 말이 즐비하였고, 이름 난 선비들이 시를 지어서 증별하니, 모두들 이렇게 성대한 일은 근래에 없던 일이라고 하였다.¹⁷⁾

다음의 시는 종종 연간에 관직을 역임한 周世鵬(1495~1554)이 진주목

가 좌승으로 있으면서 낭관을 진퇴시키지 못한 것이 두 가지 마땅히 떠나야 할 조건입니다.”라고 하므로, 한유가 다시 “공은 남겨 둔 자산도 없는데, 무엇을 믿고 돌아간단 말입니까?”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내가 두 가지 마땅히 떠나야 할 조건을 짚어졌는데, 그러고도 어찌 당신의 말을 고려할 여지가 있겠소.”라고 하고, 그길로 끝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15) 『漢書』卷71, 「疏廣傳」, 西漢疏廣、疏受叔侄分別爲宣帝太子太傅、少傅, 於榮顯中同時稱病引退.
- 16) 李賢輔, 『龔巖集』, 「退休時別帖」, p.434, <濟川亭, 送李參判辭還>, 投冠歸醉故山壺, 彭澤千年此路蕪. 想得幽居增絕勝, 風流應入御前圖.
- 17) 李滉, 『退溪集』, 「崇政大夫行知中樞府事龔巖李先生行狀」, p.548, 壬寅春, 病辭, 爲同知中樞. 秋, 又稱病請浴, 買舟東歸, 一時搢紳, 傾都出錢, 自都門至濟川亭, 車馬駢闐, 其名勝賦詩以贈. 咸稱盛事, 近古未有也.

사로 떠나는 친구를 제천정 아래에서 송별하며 지은 시이다.

收載秋光一葦中	작은 갈대배에 가을빛을 거둬 신고
濟川亭下泛冲瀾	제천정 아래에 질펀하게 떠운다.
長江浩渺連溟闊	장강은 까마득하게 드넓은 바다에 맞닿아 있고
落日蒼茫掛岫紅	저녁 해는 아득하게 붉은 산기슭에 걸려있네.
佇望南雲勞我思	오래도록 南雲을 바라보아야 하는 나의 마음은 근심에 쌓이고
行辭北闕慘君容	북쪽 대궐을 사직하고 떠나는 그대의 얼굴은 애처롭구나.
三杯短笛沙頭別	셋 피리 속에 술 석 잔으로 나루터에서 전별하리니
臣子情懷兩不窮	신하와 자식의 정회는 둘 다 끝이 없구나. ¹⁸⁾

시의 전반부는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왔던 진주목사가 다시 진주로 돌아가는 길을 환송하는 장면이다. 시의 배치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구성하지 않고 수련과 함련이 도치되어 있다. 함련에서는 송별연이 열리는 공간의 위치가 드넓게 펼쳐져 강화도로 흘러가는 한강의 모습과 저녁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 저녁에 송별연을 시작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수련에서는 송별연의 뱃놀이가 가을철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른 시간까지 질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헤어짐에 대한 화자의 독백이다. 이제 헤어지고 정 목사가 그리우면 남쪽 구름을 떨건이 바라보며 전전공공하는 자신의 심적 인 노고와 자신의 희망과 다르게 서울의 중앙관직을 떠나 지방관으로 가는 정 목사의 얼굴이 애처롭게 대비시켜 놓고 있다.

다음은 제천정이 李适의 亂 때 소실된 이후에 제천정 터에서 지어진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金萬重(1637~1692)이 아는 사람을 전송하기 위해 제천정을 찾아 지은 시이다.

18) 周世鵬, 『武陵雜稿』, <漢渡, 送鄭晉牧還任>, p.134.

濟川亭下逝水空	제천정 아래 흘러가는 물도 쓸쓸한데
賓主風流在眼中	빈객과 주인의 풍류는 눈앞에 있네.
十載兵塵冠蓋絕	10년 병화에 벼슬아치의 발길도 끊기고
荒墟衰草自秋風	황폐해진 옛터의 시든 풀 위에 가을바람이 이네. ¹⁹⁾

시의 기구는 화자가 제천정의 동쪽에 있는 두포에서 배를 타고 황폐화된 제천정 아래를 지나며 느끼는 심리상태이다. 여기에서 ‘空’은 친구와 이별에 따른 화자의 심리상태와 옛날 화려했던 제천정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보고 ‘허무하다[空]’고 느낀 것이다. 기실 제천정은 인조가 李适의 亂(1624년, 인조 2년)을 피하기 위해 공주로 피난을 갈 때, 야간에 한강을 건너는 뱃길을 밝히기 위해 불태워지고 다시 중축되지 못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승구는 배 위에서 펼쳐지는 송별연의 모습이다. 전구와 결구는 다시 당시의 제천정의 모습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연이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정은 혼란에 빠지고 민생은 토탄에 빠져 국가의 경제력은 제천정과 같은 누정을 복구할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제천정은 찾아오는 벼슬아치들은 없고 다만 황폐화된 채로 가을 풀만 황량하게 시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제천정은 국가 소유의 승경 공간으로 고관대작이 외직으로 나가거나 퇴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전별연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종종 고위 관리들에게 사적인 송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천정에서 펼쳐진 사적인 송별연에서 지어진 송별시는 많지가 않다.

송별시는 작가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결과라기보다는 대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즉흥적인 상황에서 창작되는 까닭에 시상을 가다듬고 詩語를 단련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송별시는 전송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전송의 주체와 객체가 존재하여야

19) 金萬重, 『西浦集』 卷 6, <因送人, 自豆浦舟至漢江> 其 六, p.44.

하고,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전제 되어야 한다.²⁰⁾

Ⅲ. 만남의 宴會空間

제천정은 개인의 누정이 아닌 왕실 소유의 누정으로 특별히 왕실의 행사와 외교사절의 접대 등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종종 중앙의 관료들의 계획의 장소와 문인 개인의 사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문인들은 계획의 연회에서 일어난 흥취를 시화하였으며, 사적인 모임에서도 作詩는 빼놓을 수 없는 의무였기 때문에 시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제천정에서 이루어진 관료들의 契會와 사적인 만남에서 지어진 시를 살펴본다.

먼저 계획에서 읊은 시를 살펴본다.

기실 契會는 관료사회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과 인적 결속을 위한 관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임이었다. 계획의 범주와 유형은 일반적으로 같은 관청의 동료로 결성된 동관계회, 국가적인 役事에 참여한 관원들의 都監契會, 과거 합격 동기생들의 同榜契會, 나이가 같은 관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同庚契會, 元老官僚들의 耆老會·耆英會, 그리고 私的인 만남을 기념한 契會 등으로 설정된다.²¹⁾

계획은 한강가 누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조선 초기의 문인인 강희맹이 “잠두봉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管絃歌舞 때문에 나뭇가지에 새 동지가 없었다.”²²⁾라고 할 정도로 한강가의 정자들은 많은 만남이 이루

20) 김준연, 「唐代 送別七律 常用詩語 研究」, 『중국문학』 제41집, 한국중국어 문학회, 2004. p.28.

21)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04, p. 2 참조.

22) 姜希孟, 『私淑齋集』 卷8, <西湖蠶嶺契飲序>, p. 122, 蠶嶺之地, 舊爲烏鳶鷺之所棲. 今爲弦管歌舞之所聞, 而樹梢無懸巢. 時或遊人之行樂頓息, 而俄聞國有事焉.

어졌지만 제천정에서는 다른 누정과 다르게 소수의 고위 관리나 승정원과 같은 유력한 관청의 관원들에게만 개방되었다.

다음의 시는 徐居正(1420~1488)이 漢江樓, 즉 제천정의 忘年會 석상에서 지은 시이다.

이 망년회는 임금께서 특별히 술과 안주를 부조하여 그 모임을 성대하게 하였다고 한다.²³⁾

濟川亭上綺筵開	제천정 위에도 화려한 자리를 베풀니
十二同年走馬廻	열두 동년들이 말을 달려 모여들었네.
冠岳高攢青似黛	관악산 높은 봉들은 눈썹처럼 푸르고
漢江新漲綠於醅	새로 불은 한강 물은 포도주보다 파랗네.
長風細細雨催興	긴 바람 술술 불고 비는 흥을 재촉하고
落日遲遲春滿杯	지는 해 더디고 봄은 술잔에 가득구려.
飽得聖恩歌既醉	성은에 실컷 배불러 기취를 노래하노니
樽前莫惜玉山頹	술자리서 옥산이 무너짐을 애석해 마소. ²⁴⁾

이 시는 徐居正이 1444년(세종 26년)에 문과를 함께 합격한 동기생들의 망년회 모습을 읊은 시이다. 시의 수련은 망년회의 장소가 제천정이고, 모임의 대상이 12명의 同榜契會 회원임을 밝히고 있다. 함련과 경련은 遠景으로 제천정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본 관악산과 곱어 본 한강의 모습, 여기에 近景으로 제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망년회의 모습이다. 제천정은 남쪽으로 관악산이 올라다 보이고 아래로는 검푸른 한강물이 도도하게 서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승경지이다. 이러한 승경지에서 따뜻한 봄날 함께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모여 忘年之交의 우정을 나누고 있다.

23) 서거정의 그의 다른 시에는 이 계획에 임금께서 술과 안주를 부조하였다고 하고 있다.(〈六和〉, 其二, 十二同年登俊時, 當時遭遇此爲奇. 濟川亭上忘年會, 曾見御珍絡如絲.)

24) 徐居正, 『四佳集』 卷40, <漢江樓忘年會席上>, p.415.

시의 미련은 계획에 참석한 12명의 회원들의 다짐이다. <既醉>는 『시경』 「大雅」에, “이미 술로써 취하고, 이미 은덕으로 배불렀으니, 군자께서는 만년토록, 당신의 큰 복을 크게 누리리이다.”²⁵⁾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임금의 두터운 恩誼를 입은 우리들 같은 관원들은 그 恩誼에 보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망년회에 참석한 자신들은 ‘이미 망년 지교를 맺었으므로 嵇康처럼 술에 취해 넘어져도 허물할 것이 없다’고 하며, 허물없는 우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는 容齋 李荇(1478~1534)이 한여름에 승정원의 동료 관원들과 濟川亭에 올라 불어날 물을 구경하면서, ‘朝鮮第一江山’ 여섯 자로 韻을 나누어 지은 시이다.

‘朝’자로 압운한 일실된 첫 수를 제외한 다섯 수 가운데 ‘第’자와 ‘一’자로 압운한 시는 주로 제천정 주변의 자연 경치를 읊었으므로 제외한다.²⁶⁾

- | | |
|---------|----------------------|
| ② 白水天同遠 | 흰 물은 하늘과 멀리 잇닿고 |
| 靑山雨更鮮 | 푸른 산은 비 내리니 더 고와라. |
| 若爲招羽客 | 어찌하면 신선을 이 자리에 불러 |
| 共醉玉堂仙 | 이 옥당의 신선들과 함께 취할꼬. |
| ⑤ 滔滔興不盡 | 도도한 물결에 끝없이 이는 흥 |
| 不必羨長江 | 장강을 굳이 부러워할 필요 없구나. |
| 醉後縱橫筆 | 술 취한 뒤 붓을 종횡으로 휘두르니 |
| 風流儘少雙 | 그 풍류는 참으로 짝할 이 드물어라. |
| ⑥ 高談方促席 | 서로 다가앉아 고담준론 나누는데 |
| 斜日已嘶山 | 비긴 석양은 이미 서산에 걸렸어라. |

25) 『詩經』, 「大雅」, <既醉>, 既醉以酒, 既飽以德. 君子萬年, 介爾景福.

26) 李荇, 『容齋集』 卷1, <六月初八日, 館中諸公, 登濟川亭觀漲. 以朝鮮第一江山六字分韻, 各作一絕. 翌日, 追用諸公韻, 奉呈求和, 一絕失>. p.337, ③ 江邊喬木多, 太半公侯第. 生前不盡歡, 留與他人計. ④ 但見丘陵卑, 未知洲渚沒. 只應雲際山, 偃蹇長如一.

天遺留餘興 하늘이 여흥을 남아 있게 하니
重遊莫作慳 다시 또 놀기에 인색하지 마시라.²⁷⁾

이 시는 이행과 근무하는 승정원의 동료로 결성된 同官契會 회원들이 여름날 제천정으로 피서를 와서 지은 시이다.

②의 시는 한여름 소낙비가 지나간 후 제천정의 풍광과 여기에 피서를 온 화자의 기대이다. 제천정에서 굽어본 한강은 포말을 일으키며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모처럼 시간을 내어 피서를 왔으니, 계원들 모두 즐겁게 놀기를 바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⑤의 시는 연회가 한창 무르익은 장면이다. 제천정 아래에 흐르는 한강에선 끝없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여기에 더하여 취흥이 익어간다. 그리하여 관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모두 취하여 시를 짓거나 노래를 부르며 한껏 감흥에 젖어있는 모습이다.

⑥의 시는 아침부터 시작된 여름 야유회가 어느덧 시들해져 끝나가는 장면이다. 저녁노을은 이미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고, 화자를 비롯한 동관의 관원들이 모두 지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것을 멈추고 모두 대화에 빠져들었다. 시의 후반부는 ‘이러한 계획은 인생사의 여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다음은 제천정에서 이루어진 사적인 만남을 읊은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성현이 경기감사인 鄭眉壽(1456~1512)가 한강가 제천정에서 배운 술자리에 한성부 관운 姜龜孫(1451~1506), 공조판서 金諶(1445~1502) 등과 함께 참석하여 지은 시이다.

靑山如畫捲輕嵐 그림같은 청산엔 열은 산안개가 피어오르고
樓枕長江萬景涵 긴 강가에 서있는 제천정엔 온갖 경치가 들어오네.
風遠笛聲搖極浦 바람 따라 첫대소리는 저 멀리 극포에서 실려 오고

27) 李苻, 『容齋集』 卷1, <六月初八日, 館中諸公, 登濟川亭觀漲. 以朝鮮第一江山六字分韻, 各作一絕. 翌日, 追用諸公韻, 奉呈求和, 一絕失>, p.337.

日斜帆影落清潭	햇볕에 기운 돛대 그림자는 청담에 떨어지네.
使君樽酒筵初秩	경기감사가 통술 자리를 처음 베푸니
客子風流興正酣	나그네의 풍류의 흥도 바로 무르익네.
自幸陳人參盛列	진부한 사람이 성대한 반열에 참여함은 다행인데
愧無佳句侑清談	좋은 시구로 청담을 도울 수 없음이 부끄럽구나. ²⁸⁾

시의 전반부는 제천정의 위치와 승경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제천정에선 멀리 남쪽으로는 관악산, 북쪽으로는 가까이는 남산, 그 위쪽에는 삼각산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고, 산등성이에선 아내가 피어오른다. 다시 한강을 굽어보면 서쪽에선 바람결에 저 멀리 강화도에서 뱃사공들의 첫 대소리가 들려오고,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동호엔 배의 돛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시의 후반부는 만남의 장면이다. 경기감사인 정미수가 술자리를 베풀고, 화자를 비롯하여 이 모임에 참여한 동료 관원들은 주고받는 술잔에 이미 취하여 흥이 나있다. 그러나 화자 자신은 능력이 없고 평범하여 곧바로 화답시를 지을 수 없음을 부끄럽다고 하여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는 호음 鄭士龍이 평소 친한 친구인 다섯 명과 제천정에서 여름의 끝자락에 뒤늦은 피서를 하며 지은 시이다.

紅亭隱約黑林梢	붉은색 정자는 검은 숲 나뭇가지에 가려있고
逃暑來登瞰遠郊	더위를 피해 올라와 저 멀리 교외를 바라본다.
山勢縱橫麗濟界	산세는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에 종횡으로 뻗어있고
年光賓送夏秋交	세월은 나그네처럼 지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네.
村非龜手長漂統	꾸밈이 없으니 균수가 아니더라도 길이 하얗게 빨아 입을 수 있고
俗近忘機可俯巢	바리는 욕심이 거의 없으니 등지만한 집에 누울 수 있다네.
不久收身鷗鷺社	오래지 않아 은퇴하여 갈매기 떼와 함께하고
餘生都向此中拋	남은 인생은 모두 이 속에 내던지리라. ²⁹⁾

28) 成倪, 『虛白堂補集』卷3, <判京兆用休, 冬官亞卿君諒, 右尹士元會濟川亭. 余亦往參, 京畿監司耆叟設酌>, p.370.

시의 수련은 제천정의 모습과 자신들이 이곳에 피서를 왔음을 밝히고 있다. 화자는 제천정이 다른 누정과 다르게 붉은색으로 단청되어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화자와 동료들은 더위를 피해 이곳에 올라와 멀리 교외를 조망하고 있다. 시의 함련은 수련의 자세한 부연설명이다. 즉 제천정에서 바라다 본 동남쪽의 산들은 남북에서 동서로 뻗어 있으며, 옛날에는 ‘이를 경계로 하여 고구려와 백제가 대치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한 화자가 늦여름 늦더위를 피해 이곳에 올라왔음을 다시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시의 함련은 화자의 安貧樂道의 인생관에 대한 설명이다. 화자 자신은 본디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龜手가 만든 약품이 없더라도 무명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을 수 있고, 바라는 욕심이 크지 않으니 새둥지만한 집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出句에 나오는 ‘龜手’는 『莊子』 「逍遙遊」에 “송나라 사람 중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자가 있어서 대대로 솜빨래를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³⁰⁾라는 표현을 用事하여, 손수 빨래를 하고 살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련은 다시 화자의 의지의 표현이다. 화자는 관직에 매여 여름휴가도 때맞추어 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멀지않은 장래에 관직을 버리고 강호에 은퇴하여 갈매기와 함께 自然樂을 즐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제천정은 개인의 누정이 아닌 왕실 소유의 누정이었기 때문에 관료들의 계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종종 중앙의 관료들의 계회의 장소와 문인 개인의 사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천정을 무대로 하거나 소재로 한 한 시는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누정에 비해 그 수요가 많지가 않다.

29) 鄭士龍, 『湖陰雜稿』卷4, 「南宮日錄」, <季夏下旬, 同張河原子房, 金亞卿仁卿, 宋俞樞伯圭, 避暑濟川亭小酌. 是日, 庚丈金錫之, 赴全羅左水營>, p.130.

30) 『莊子』 「逍遙遊」, 宋人有善爲不龜手之藥者, 世世以泝澣絁爲事.

IV. 국가 행사의 宴會空間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정자로 외교사절을 접대하거나 임금의 도성 순행 등 행사의 뒤풀이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제천정은 왕실의 주관으로 1456(세조 2년)년 명나라에서 온 조선출신 사신인 尹鳳을 접대하는 등 사신들을 위한 연회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³¹⁾ 또한 왕이 민정을 시찰하거나 농사의 풍흉을 점검하기 위해 도성을 나와 민간을 순찰할 때 잠시 머물며 연회를 베풀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제천정의 연회에서는 사신과 이를 수행하는 문관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시가 많이 지어졌다. 또한 임금을 호종하여 갔을 때에도 이를 축하하기 위한 많은 시가 지어졌다.

본 장에서는 제천정에서 베풀어진 여러 연회 가운데 외교 사절과 수창하거나 이를 위해 지은 시와 임금이 행차하여 행한 행사의 뒤풀이에서 지어진 시를 살펴본다.

먼저 제천정에서 외교사절을 접대하기 위해 베풀어진 연회에서 짓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은 시를 살펴본다.

다음의 시는 沈義(1475~?)가 1537(中宗 32년) 명나라 皇嗣 탄생의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조선에 사신으로 온 翰林院修撰 龔用卿과 戶科給事中 吳希孟을 접대하기 위해 제천정에서 베풀어진 연회의 상황을 묘사한 시이다.

樓觀彙飛架碧澗 누관은 날아갈 듯 푸른 물가에 걸쳐 있고
輝煌獸錦使輶臨 금수를 수놓은 비단 언치를 두른 사신의 말이 이르네.

31) 왕조실록에 의하면, 제천정에서 사신들을 위한 연회는 세조 2년(1456)에는 명나라 사신 尹鳳, 세조 3년(1457) 명나라 사신 陳鑑, 세조 14년(1468) 명나라 사신 金輔, 예종 1년(1469) 명나라 사신 鄭同과 沈繪, 그리고 崔安, 성종 8년(1477)에는 유구국의 사신을 위로하는 연회 등, 제천정이 소실되어 없어질 때까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煙峯乍露千螺髻 안개 낀 산봉우리는 언 듯 천 가닥 트레머리처럼 드러나고
 曉日新鎔萬須金 새벽 태양은 새롭게 만 가닥 금실을 빚어내네.

중략

尊前物色供圖畫 사신님 앞의 경치는 모두 그림책에 들어갈 만하고
 天上神仙屬品題 천상의 신선같이 모두 뛰어난 인물
 漁笛隔簾磯鷺散 어부들의 피리소리에 주렴 밖 물가의 해오라기들이 흩어지고
 風帆趁曠海門迷 바람을 탄 돛단배들은 드넓은 해문 밖으로 아득히 사라진다.
 人間便有瀛洲勝 인간 세상엔 또 다시 영주의 승경이 남아 있으니
 騎鶴何須問棗梨 학을 타고 노니는데 서책을 물어 무엇 하리오.³²⁾

시의 전반부 제천정의 위치와 사신일행의 방문, 그리고 제천정에서 바라본 주변 경치의 묘사이다. 이른 새벽 제천정 앞에는 새벽 태양이 만 가닥 금실을 토해내며 떠오르고, 저 멀리 관악산의 산안개가 사라지자 천 가닥 트레머리처럼 산봉우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승경을 즐기 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한 언치를 덮은 말들을 탄 사신 일행이 제천정에 이르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사신 일행을 신선과 같다는 칭찬과 제천정의 그림과 같은 풍경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제천정의 주렴 밖 가까이에서는 어부들의 피리소리에 놀란 해오라기들이 흩어지고 있다. 화자는 주렴 밖의 경치를 눈으로 조망한 것이 아니고 어부들의 ‘젓대소리’와 해오라기들이 흩어지며 내는 ‘울름소리’를 통해 해오라기들이 흩어짐을 짐작한 것이다. 또한 바람을 탄 돛단배들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 제천정이 승경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아가 화자는 瀛洲와 같은 승경지인 제천정에서 세상사를 잊고 여기에서 여생을 마치고자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는 河西 金麟厚(1510~1560)가 명나라 사신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32) 沈義, 『大觀齋亂稿』 卷 2, <次濟川亭韻, 天使龔用卿, 吳希孟到本國. 余與選於製述官, 仍有是作>, p.147.

江上天成百尺臺	강가에 하늘이 만들어 놓은 백 척의 누각
澄波凝綠鏡無埃	맑은 물결은 티끌하나 없는 거울이네.
茫茫極浦舟南北	아득히 멀리 극포에는 배가 남북으로 오고가고
杳杳長空鳥去來	저 멀리 아득한 장공에는 새가 오락가락하네.
汀草有情吟外碧	물가의 풀들은 유정하여 시를 읊조리는 밖에서 푸르고
岸花隨意望中開	언덕의 꽃들은 마음먹은 대로 바라보이는 곳에 피었네.
叨陪高會誠逾分	성대한 연회에 모시게 됨은 진실로 분수가 넘치는데
乘興還須倒百杯	흥이 일면 또 다시 백 잔이나 기울려야 하리. ³³⁾

이 시는 전형적인 한시 작법인 先景後情으로 구도로 짜여진 시이다. 즉 시의 수련에서 경련은 모두 제천정의 경치를 읊고 마지막 미련에서 화자의 정회를 붙였다. 시의 수련은 화자가 제천정 밖에서 제천정을 바라다 본 모습과 한강물의 모습이다. 즉 제천정을 멀리서 올려다보니, 백 척의 누각이고, 그 앞의 강물은 거울처럼 맑다. 합련은 다시 제천정에 올라와서 바라본 遠景이다. 저 멀리 서쪽 끝에 있는 강화도의 극포 앞바다에는 배들이 남북으로 오고가고, 하늘 위에는 새들이 오락가락 날아가고 있다. 경련은 제천정의 近景이다. 제천정 주변의 물가에 자란 풀과 꽃들이 한없이 다정하게 달아온다.

미련은 다시 화자의 모습이다. 화자는 외교 사절을 모시는 성대한 자리에 참석한 것도 분수에 넘치지만, 접대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사신들을 끝까지 잘 접대하여 외교적인 결례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는 權輿(1569~1612)이 명나라 사신인 朱之藩이 지은 ‘한강에서 배 띄워 고기잡이 구경하며[漢江泛舟觀漁]’란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①江上和風引上客	강가의 온화한 바람이 상객을 이끌어
淸曉肩輿出南陌	맑은 새벽 견여를 타고 남쪽들로 나섰네.
笙歌擁路雜輪蹄	풍악은 길가에 울리고 車馬도 많은데

33) 金麟厚, 『河西全集』 卷 10, <濟川亭, 次華使韻>, p.194.

兩仙住節臨苔磯	두 신선 행차 멈추고 강가에 이르렀어라.
②濟川亭子名海國	제천이라 정자는 해국에서 이름났으니
乘輿不辭勞遠陟	홍을 타매 먼 길 가는 수고도 무릅쓴다.
東山絲竹繼謝安	동산의 사죽은 사안의 것을 이었으며
赤壁風月追蘇軾	적벽의 풍월은 소식을 따랐어라.
亭前湛湛江水流	정자 앞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島嶼出沒連芳洲	섬들은 출몰하며 방초 물가에 이어졌다.
③中天睇眇殊未已	중천을 돌아보니 아직 해가 안 저물어
更復移尊登彩舟	다시금 술동이 옮겨 채색 배에 오르노라.
高談朗詠相許與	고담과 시 주고받으며 서로 허여하니
座上風標皆學舉	좌중의 사람들 풍모는 모두 출중하도다.
중략	
酒中樂作仍設鱸	술 취하고 풍악 울리며 회까지 치니
此興已覺超塵界	이 흥취 이미 속진 세계 벗어났어라.
④但憐頃刻割素鬢	다만 안타까운 건 경각에 흰 지느러미 자르며
龍門永失風雲會	용문에서 풍운의 만남을 길이 잃는 것.
歸舟日落浪打篷	돌아가는 배에 해는 지고 물결이 뺏전 때리니
極目烟樹何重重	시야에 멀리 내 낀 나무는 어찌나 겹겹인지.
向來奇事易陳跡	예전의 좋은 만남들 쉬이 묵은 자취 되고
獨留江月當靑空	오직 강의 달빛만 남아 푸른 허공에 비친다. ³⁴⁾

이 시는 1606(宣祖 39년) 명나라 한림원 수찬 朱之蕃과 刑科都給事中 梁有年이 皇孫 탄생의 조서를 반포하기 위해 조선에 왔을 지은 시에 대해 차운한 것이다.

시의 ①부분은 사신인 朱之蕃과 梁有年の 일행이 한강가에 있는 제천정에 찾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신 일행은 이른 새벽 肩輿를 타고 출발하였는데, 이들의 행차를 위해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며 선도하고 뒤에는 車馬들이 뒤따르고 있다.

시의 ②부분은 제천정의 풍경이다. 제천정은 일찍이 중국의 사신이

34) 權輶, 『石洲集』 卷 2, <次韻上使漢江泛舟觀漁, 朱太史之藩>, p.24.

‘朝鮮第一江山’이라고 편역한 곳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은 의례적으로 이곳을 찾아왔다. 화자는 오늘 이곳을 찾아온 朱之蕃과 梁有年은 쯤나라 謝安처럼 풍채가 뛰어나고 식견이 높은 큰 인물로 내정과 外治의 업적을 남길 것이며, 적벽부를 쓴 소식처럼 명문장가다 될 것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다.

시의 ③부분은 다시 제천정에서의 연회에 이어 뱃놀이를 하는 장면이다. 제천정에서의 취흥이 계속되어 사신 일행들은 배에 술동이를 싣고 한강으로 나가고 있다. 이들 일행은 흥이 넘쳐 신분의 고하를 잊고 시를 주고받고, 여기에 더하여 노래까지 불러 흥이 넘쳐나고 있다.

시의 ④부분은 취흥에 의한 일탈에 대한 경계이다. 한강 뱃놀이의 유희에 빠지는 것은, “회를 쳐서 잉어가 죽으면 다시는 黃河의 龍門을 거슬러 올라가 風雲의 조화를 부리는 용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割素鬢’은 두보의 <觀打魚歌>에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아침에 흰 지느러미 잘리면 지척 거리 물결로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³⁵⁾을 用事한 것이다. 이처럼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은 제천정을 찾아 마음껏 호사를 누려서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기도 하였다.³⁶⁾

다음은 제천정에서 국가의 행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회에서 지은 시를 살펴본다.

제천정은 외교사절에 대한 접대 공간뿐만 아니라, 수군의 훈련을 감독하거나 고위 관리들을 위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1483년(성종 14년) 성종은 종친과 宰樞의 1품 이상 관원들에게 제천정에서 연향을 베풀고 음식을 하사³⁷⁾하는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제천정에서

35) 杜甫, <觀打魚歌>, 君不見朝來割素鬢, 咫尺波濤永相失.

36) 李陸, 『清坡劇談』, 妓女紫洞仙才貌冠絕, 宗室永川君酷嬖之. 君嘗寵青郊月, 既而移愛於洞, 適往松都. 都中有青郊驛紫霞洞, 徐達城以詩贈行曰, 青郊楊柳傷心碧, 紫洞烟霞滿意濃. 君大喜, 嘗於衆中誦此詩以自誇. 張翰林寧奉使本國, 每宴必目洞仙曰, 眞傾城姿也. 後金天使混游於濟川亭, 紅妓滿前, 問曰張翰林所稱貴國紫洞仙誰也. 禮官誣指他妓. 金曰非也, 果此人, 張公必不稱也. 禮官不敢隱, 遽以駙騎索洞仙於永川第. 金笑曰此眞其人也.

휴식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시는 虛白亭 洪貴達(1438~1504)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 제천정에서 휴가를 즐기며 지은 시이다.

霽晚江亭水拍天	저물녘 개인 강정에 물결이 치는데
虛皇恩許小遊仙	虛皇께서 은혜로이 선계에 노닐을 허락하셨네.
內臣酒共詞臣酌	내신과 詞臣이 함께 술을 따르고
新相杯從舊相傳	새 정승의 잔 옛 정승에게서 전해오네.
舟子打魚當鏡面	사공은 잔잔한 물위에서 물고기를 잡고
庖人斫鱸在罇前	庖人은 술동이 앞에 두고 회를 썬네.
醉鄉不信渾無事	醉鄉에 혼연히 일 없다는 것 믿지 않나니
時禮堯天上萬年	때때로 요임금의 세상이 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네. ³⁸⁾

시의 전반부는 화자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일찍 조퇴하고 제천정에 와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과 승정원의 승지들과 문신들이 함께 술잔을 주고받으며 즐기는 모습이다. 시의 후반부의 경련은 승지와 문신들의 술자리의 안주를 장만하는 모습이다. 뱃사공들은 물고기를 잡고 포인들은 잡은 물고기를 즉석에서 회를 썰고 있다. 미련은 바쁜 공무에 휴가를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이같은 태평성대가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다음의 시는 訥齋 朴祥(1474~1530)이 중종이 농사를 점검하기 위해 홍인문 밖에 나오셨다가 제천정에 갔을 때, 호종하여 제천정에서 지은 시이다.

君王駿馬出江頭	군왕의 준마가 한강가에 출두하고
勸相秋郊試一遊	제상들에게 가을 교외에 한 번 유람할 것을 권하네.

37) 『조선왕조실록』, 成宗 20년 6월 9일條, 命領敦寧以上, 議政府及六曹, 漢城府各一員, 左承旨韓健往東郊觀稼, 賜酒樂于濟川亭. 領議政尹弼商等辭.

38) 洪貴達, 『虛白亭集』 卷 1, <濟川亭觀水, 奉教撰>, p.127.

金袋密陪襄鳳蓋	금대들이 추어올린 봉황 일산을 조용히 뒤 따르고
羽林嚴扈樹虹旒	우림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삼엄하게 호종하네.
復租南頓追劉帝	한나라 고조가 남둔현에 세금을 면제해준 것을 따르고
稅駕桑田少衛侯	뽕밭에 말을 풀어 놓고 휴식을 취한 衛侯를 작다고 여기네.
雷雨只緣清蹕御	뇌우가 다만 임금의 행차 길을 치우는 일을 묶지만
前驅軍士莫深愁	앞서간 군사들이여 너무 깊은 근심은 하지마라. ³⁹⁾

시의 전반부는 중중이 신료대신들을 이끌고 제천정에 유람하는 장면이다. 중중은 가을걷이의 豊凶을 점검하기 위해 홍인문을 나서 제천정에 이른 것이다. 금대를 두른 신료들은 임금을 태운 봉황 수레를 뒤 따르고 무사들은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다. 경련은 중중 임금은 漢나라 고조 유방이 南頓縣에 행차해서 吏人에게는 금품을 하사하고, 縣民에게는 1년 동안 조세를 면제하여 주었듯이 선정을 베풀고, 공무와 권농으로 쉴 틈이 없이 바쁘다고 묘사하고 있다. 미련에서는 雷雨로 인해 제천정의 연회가 중단되고, 임금의 歸闕에 따른 호위 병사들의 고생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는 호음 鄭士龍이 명종을 호종하여 제천정에 나아가 水戰을 관람하며 지은 시이다.

不數昆池鑿苑中	몇 안 되는 곤명지를 정원 안에 파 놓고
徒勤遠略習縲籠	다만 부지런히 원대한 지략으로 병선을 훈련시킨다.
旌旗翳日戈船列	군사의 깃발들은 해를 가리고 창끝은 배들을 갈라놓고
鼓角傳圍月暈同	고각소리가 전해지자 달무리처럼 둘러쌓네.
擣穴未窮先制勝	혈을 찌르기도 전에 먼저 제압하여 이기고
捷音纔報已收功	승전보가 겨우 전해 졌는데 벌써 마무리가 되었네.
回鑾聳得都人觀	돌아가는 임금의 수레를 모든 사람들이 공경히 바라보고
載纘先朝克詰戎	선조를 잘 계승해서 군대를 잘 다스렸네. ⁴⁰⁾

39) 朴祥, 『訥齋集』 卷 2, <庚辰八月二十八日, 上觀稼, 出自興仁門, 駐蹕濟川亭. 試材官射, 過永渡橋, 及狝踰, 雷雨驟至, 趣還宮>, p.55.

40) 鄭士龍, 『湖陰雜稿』 卷 4, <扈駕濟川亭, 觀水戰>, p.140.

1558년(명종 2년) 명종은 西郊에서 농사짓는 것을 살펴보고, 濟川亭에 나아가 水戰을 관람하였다. 화자인 정사룡은 이때 임금을 호종하여 제천정에 가서 수전을 관람한 것이다.

시의 전반부는 제천정에서 수전이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두 패로 나눈 군사들의 깃발은 해를 가리며 서로 배를 몰아 포위를 하고 있다. 1구의 ‘昆池’는 한나라 武帝가 수도인 장안 근교에 파놓은 곤명지로 이곳에서 수군을 조련하였던 곳이다.

시의 후반부는 수전이 시작되자마자 한쪽의 군대가 다른 쪽의 군대를 제압하여 쉽게 이기는 장면과 수전의 뒷마무리를 하는 장면이다. 여기에 더하여 명종의 御駕가 궁궐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배웅하는 장면이다. 마지막 구의 ‘詰戎’은 『書經』 「立政」에 나오는 말로 ‘군사를 다스리는 것’⁴¹⁾을 의미하고, ‘載績’은 『詩經』 「豳風」 <七月>에 나오는 말로 ‘무공을 계승’⁴²⁾하여 전쟁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시는 宋寅(1517~1584)이 명종을 호종하여 제천정에 갔을 때, 임금이 ‘江湖夏景’이라고 詩題를 내놓자, 이에 지어 올린 시이다.

江流西接海門長	강물은 서쪽으로 아득히 해문 밖에 접해있고
岸草汀沙望渺茫	언덕의 풀과 물가의 모래톱은 아득히 바라보인다.
入夏葡萄深漲綠	여름이 들자 늘어진 풀들은 더욱 푸르름이 짙어가고
迎風羅縠動晴光	바람을 맞은 잔잔한 물결은 맑은 햇볕아래 파문이 이네.
樓臺增美鑾輿駐	누대는 더욱 임금의 수레가 머물러 있어 아름답고
魚鳥咸欣廣樂張	물고기와 새들은 광악의 연주에 흡족해 하네.
遊豫順時爭獻賦	때에 맞추어 임금이 순수하시니, 다투어 시를 지어 올리고
洞庭何獨說軒皇	동정호만 어찌 홀로 황제를 말하겠는가? ⁴³⁾

41) 『書經』 「立政」, 其克詰爾戎兵.

42) 『詩經』 「豳風」 <七月>, 二之日其同, 載績武功. 言私其縱, 獻豳於公.

43) 宋寅, 『頤庵遺稿』 卷1, <濟川亭扈駕應製, 御題江湖夏景, 長字韻>, p.88.

시의 전반부는 제천정에서 바라본 여름날의 풍경이다. 首聯의 出句는 원경으로 한강물이 서쪽으로 아득히 바다에까지 접해있고, 對句는 근경으로 제천정이 있는 남산의 자락과 한강의 모래톱의 모습이다. 그리고 함련은 여름날 무성하게 자란 풀들은 질푸르러가고, 한강의 물은 바람이 불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 후반부는 임금의 행차 후 벌어진 연회의 모습이다. 제천정은 임금과 임금을 호종하기 위해 뒤따라 온 문무백관들의 화려한 의상이 더해져 더 화려하게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연회의 흥을 돋우기 위해 악사들이 광악을 연주하니, 새와 물고기조차도 즐거워하는 태평성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흥에 취한 화자는 ‘제천정이 동정호에 있는 황학루에 비견된다’는 내용의 시를 지어 올리고 있다.

이처럼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정자로 외교사절을 접대하거나 임금의 도성 순행 등 행사의 뒤풀이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제천정에서의 연회는 왕실의 주관으로 사신들을 위한 연회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사신들도 의례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회를 즐겼다. 이때 외교사절과 이를 수행하는 문인들은 서로 시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盛事로 여겼다.

또한 국가의 원로대신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의 공간으로 삼았으며, 임금이 민정을 살피거나 농사의 豊凶을 점검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출타할 때에는 잠시 이곳에 머물며 연회를 베풀던 공간이었다. 이 때 베풀어진 연회에서 지어진 시들은 모두 當代를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임금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V. 結論

본고는 제천정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 제천정의 승경만을 읊은 시를 제외하고, 제천정에서 이별과 만남에서 지어진 시, 국가의 행사의 일환으로 행하는 宴會에서 지어진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천정이 갖는

문화사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천정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사이로 뻗어 내린 남산 줄기의 등성이에 세워진 정자로 서울의 승경지 중의 하나이다.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승경 공간으로 주로 왕실과 관련이 있는 행사와 외교 사절의 접대, 고관대작이 외직으로 나가거나 퇴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전별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제천정에서 지어진 시나 제천정을 소재로 한 시들은 제천정의 소유와 연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제천정은 처음부터 왕실의 소유였기 때문에 개인 문인들이 자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왕실의 행사나 사신들을 위한 유람과 연회, 종종 고관대작들의 사적인 모임과 외직인 지방관으로 전출되어 가거나 퇴직하여 낙향할 때 송별연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제천정에서 지어진 시들은 그 명성에 비해 많이 지어지지 않았다.

또한 제천정이 李适의 亂을 피해 仁祖가 야간에 한강을 건너 피신을 할 때, 불을 밝히기 위해 소실된 이후에는 이곳을 찾는 문인이 거의 없어서 이곳을 무대로 하여 지어진 시는 거의 없다. 제천정과 관련된 시는 주로 제천정의 승경을 읊은 시와 제천정에서 이루어진 연회와 같은 각종 모임에서 지어진 시가 있다.

송별시는 전송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시 말해 전송의 주체와 객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전송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전제 되어야 한다. 제천정에서 펼쳐진 사적인 송별연에서 지어진 송별시는 많지가 않다. 이는 송별의 장소가 나루터나 갈림길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제천정이 왕실소유의 누정이었기 때문에 시인묵객들이 쉽게 이곳에서 송별연을 개최할 수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된다.

契會는 관료사회에서 원활한 직무 수행과 인적 결속을 위한 관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모임이었다. 계획은 한강가 누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정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계획에서 지어진 시 가운데 제천정을 무대로 하거나

소재로 한 한 시는 다른 누정에 비해 그 수효가 많지가 않다. 또한 문인 개인의 사적인 만남에서 지어진 시도 고위 관료들을 중심으로 지어졌다.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정자로 외교사절을 접대하거나 임금의 도성 순행 등 행사의 뒤풀이 장소로 주로 사용되었다. 즉 제천정에서의 연회는 왕실의 주관으로 사신들을 위한 연회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사신들도 의례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회를 즐겼다. 이때 외교사절과 이를 수행하는 문인들은 서로 시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盛事로 여겼다. 또한 국가의 원로대신을 위로하기 위한 연회의 공간으로 삼았으며, 임금이 민정을 살피거나 농사의 豊凶을 점검하기 위해 도성 밖으로 출타할 때에는 잠시 이곳에 머물며 연회를 베풀던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사신들뿐만 아니라 이를 접대하는 고위 대신들의 화답시가 많이 지어졌고, 임금의 순행 뒤의 뒤풀이 행사에도 이를 기념하는 시가 지어지기도 하였다. 이 때 지어진 시들은 모두 當代를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임금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천정은 서울을 대표하는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국가 행사의 연회가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곳이 왕실 소유로 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가 지어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지어진 시의 양과 내용의 분류, 이것이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축출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參考 文獻>

- 姜希孟, 『私淑齋集』, 한국문집총간 12, 민족문화추진회.
金萬重, 『西浦集』, 한국문집총간 148, 민족문화추진회.
金麟厚, 『河西全集』, 한국문집총간 33, 민족문화추진회.
金宗直, 『佔畢齋集』, 한국문집총간 12, 민족문화추진회.
朴祥, 『訥齋集』, 한국문집총간 18, 민족문화추진회.
徐居正, 『四佳集』, 한국문집총간 10, 민족문화추진회.
成倪, 『虛白堂集』, 한국문집총간 14, 민족문화추진회.
宋寅, 『頤庵遺稿』, 한국문집총간 36, 민족문화추진회.
申晷, 국역 『再造藩邦志』, 민족문화추진회, 1971.
沈義, 『大觀齋亂稿』, 한국문집총간 19, 민족문화추진회.
顏之推, 『顏氏家訓』, 上海古籍出版社, 1980.
李陸, 『清坡集』, 한국문집총간 13, 민족문화추진회.
李荇, 『容齋先生集』, 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회.
李賢輔, 『龔巖集』, 한국문집총간 17, 민족문화추진회.
李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 민족문화추진회.
鄭士龍, 『湖陰雜稿』, 한국문집총간 25, 민족문화추진회.
周世鵬, 『武陵雜稿』, 한국문집총간 26, 민족문화추진회.
洪貴達, 『虛白亭集』, 한국문집총간 14, 민족문화추진회.
- 김영상, 『서울 육백년』 5(한강·한강 유역), 대학당, 1996.
김준연, 「唐代 送別七律 常用詩語 研究」, 『중국문학』 제41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4.
박종우, 「16세기 누정 공간의 특성과 누정 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우리어 문연구』 32집, 2008.
우홍순, 「壬辰亂 前後 서울의 文化空間과 漢詩」, 『한국한시연구』 제8집, 한국한시학회, 2000.
유홍준, 이태호 편,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 학고재, 2000.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박사학위논문, 2004,
이종목, 「16세기 한강에서의 宴會와 詩會」, 『韓國詩歌研究』 제9집, 한국시
가학회, 2001.

Abstract

Jecheonjeong(濟川亭), a Space of Party for Farewell, Meeting, and National Events
/ Lee Dong Jae*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status of Jecheonjeong in the cultural history by examining poems improvised at parties thrown as parts of national events and at farewell and meeting banquets held in Jecheonjeong, which was placed on the bank of River Han in Seoul.

Jecheonjeong, a gazebo possessed by the royal family, which had been built on the bank of the Han River in the present Hannam-dong, Yongsan-gu, Seoul, was used as a space for events concerning the royal family, the entertainment of foreign diplomatic corps, meetings of bureaucrats, and farewell events when a bureaucrat moved to some non-central office or resigned to return his homeland.

Despite Jecheonjeon's well known status, there are just a small number of farewell poems improvised at private farewell parties thrown in this plac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state of affairs would be that poets were not able to easily throw a farewell party in Jecheonjeong because it was a gazebo belonging to the royal family though the main reason was that places for farewell events mainly included river ports and forks.

Gyehoe (契會 bureaucrats' regular meeting) was a gathering playing the role of pivot among administrative officers for their smooth performance and consolidation. Though Gyehoe was actively held in gazeboes on the banks of Han River, Jecheonjeong was far less popular than others because it was a place possessed by the royal family. Thus, among those poems composed at Gyehoe's, only a few took Jecheonjeong as their setting or subject matter compared with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dj@kongju.ac.kr

other gazeboes, and the composers mainly consisted of bureaucrats in high positions.

Jecheonjeong was used as a space of parties for envoys thrown by the royal family, and envoys themselves also made it a rule to enjoy banquets in this place. At such an occasion, diplomatic corps and accompanying literary men gave and took poems, which they regarded as a great affair. Furthermore, Jecheonjeong was used as a space of parties for consoling national elder statesmen, and Kings also threw parties staying temporarily when they went out of the capital city in order to look at people's lives and check agricultural yielding.

I will leave the classification of the amounts and contents of the poems improvised in this place, and abstract away their significance in the cultural history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Jecheonjeong(濟川亭), farewell parties(送別宴), Gyehoe(契會), banquets(宴會), diplomatic corps(外交使節)

투고일 : 10월 23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